

8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사흘만에 반등.. 다우 0.9%↑</p>	<p>뉴욕 증시가 18일(현지시간) 사흘만에 반등에 성공했음.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 개선이 호재로 작용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82.60포인트(0.90%) 상승한 9,217.9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08포인트(1.30%) 오른 1,955.9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9.94포인트(1.01%) 뛸 989.67을 각각 기록했음.</p> <p>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지수 선물이 오름세를 나타내며 상승장을 예고했고 전일 주요 지수가 2%대의 낙폭을 기록한 틈을 탄 매수세가 유입되었음. 특히 홈디포, 타겟, 삭스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 이틀간 진행된 조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소비지표였다는 점에서 소비와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의 실적 개선은 반등의 기반을 마련해 줬음. 지난달 주택착공이 당초 증가 예상을 뒤엎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자들은 단독주택 착공이 5개월 연속 증가한 점에 더 주목했음. 또한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아직 멀었다는 안도감을 주었음. 유통업종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일제히 올랐고, 금융주는 잇따른 투자의견 상향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음. 반면 헬스케어주는 정부가 공공의료보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하락했음.</p>
<p>생산자물가 예상보다 더 떨어져</p>	<p>미국 노동부는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0.9% 하락했다고 밝혔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자물가가 하락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0.1% 하락했음. 마켓워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PPI가 0.9% 하락하고 근원 PPI가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음. 6월에는 PPI가 1.8%, 근원 PPI가 0.5% 상승했었음.</p>
<p>단독주택 착공 5개월째 증가</p>	<p>미국 상무부는 7월 주택착공이 전월대비 1% 감소한 58만 1,000건(계절조정)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단독주택 착공이 1.7% 증가한 반면 다가구주택 착공은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마켓워치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는 각각 59만 6,000건, 60만 5,000건이었음. 전월에는 58만 7,000건(수정치)을 기록했음.</p>

제목	주요 내용
IMF "글로벌 경기회복 시작"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음. 블랑샤르는 이날 보고서에서 "회복은 시작됐다"면서 "다만 위기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공급과 수요에 수년 동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 "이머징마켓으로의 자본 유입은 향후 수년 동안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유가, 사흘만에 반등.. 배럴당 69달러 회복	국제 유가가 사흘만에 반등하며 배럴당 69달러 선을 회복했음.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44달러(3.6%) 오른 69.19배럴에 장을 마쳤음.
도요타, 캘리포니아 공장 폐쇄 `고심중`	GM은 지난 달 도요타와 GM의 합작사 `뉴 유니티드 모터 매뉴팩처링(NUMMI)`을 접기로 결정한 바 있다. NUMMI는 1984년 설립 이후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 사업부. 연간 약 40만대 가량을 생산해 왔음. 하지만 도요타는 수천만 달러의 잠재적인 폐쇄 비용 등 산적한 난제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도요타의 한 경영진은 "현재 GM 경영진들과 어떻게 사업을 철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협상중"이라며 "직감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음.
靑 "나로호 발사, 예정대로 진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발사 연기 여부가 검토됐던 나로호 발사가 예정대로 19일 진행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은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이 대변인은 "축제 등 애도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정상적인 국정은 진행하는 것이 고인의 뜻에도 맞다"며 "나로호 발사도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음.
CJ오쇼핑, 16일 하루매출 최고치 경신..`160억`	CJ오쇼핑(035760)은 지난 16일 하루 동안 진행한 디지털 가전 특집 방송(디지털 팍팍쇼)을 통해 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음. 이에 앞서 CJ오쇼핑은 지난 3월, 120억원의 하루 매출 기록을 세운 바 있음. 회사 측은 16일 당일 극심한 폭염으로 바깥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시청률이 평소 주말보다 급증한 게 매출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답답한 실내 스튜디오 대신 야외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한 것도 한 몫을 했다는 판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